

“아이들 구하러 가야 해” 의로운 죽음 선택했는데...

故 양대홍 사무장 아직까지 ‘의사자’ 지정 못받아 형 석환씨 “명예회복 바라지만... 실종자부터 찾길”

“수첩 통장에 돈이 입금돼 있으니 큰아들 학비로 써! 난 지금 아이들 구하러 가야 해, 끊어.”

지난 4월 16일 오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부인에게 짧은 작별 인사를 전하고 의로운 죽음을 선택했던 여수 출신 고(故) 양대홍 사무장.

참사 당시 침몰중이던 배에서 한 명의 승객도 구하지 못했던 무능한 정부, 승객과 배를 버리고 재빨리 탈출을 감행한 선장 등 선원들과 달리 양대홍 사무장의 투철했던 직업 정신은 온 국민에게 큰 울림을 줬다. 하지만 참사 100일 앞둔 지금까지도 의로운 그의 죽음은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잊어서는 안 될 세월호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양대홍 사무장은 참사 100일이 다 되도록 정부로부터 ‘의사자’로 공식 지정받지 못했다.

양 사무장은 세월호 고위 승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탈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객 구조를 위해 배를 지키다가 끝내 숨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국민은 침몰을 앞둔 배에서 그가 선택한 마지막 행동을 보고 ‘의인(義人)’이라고 했다.

참사 초기 온 국민이 나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죽음을 택한 양 사무장을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부산히 움직였던 정부의 모습과 그 결과는 대조적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월 23일 국민의 뜻에 따라 양대홍 사무장을 의사자로 지정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시가 의사자 지정에 필요한 ▲사망 진단서 ▲추천 공적서 ▲의사자 지정 신청서 등 서류 일체를 갖춰 복지부에 제출한 지 2개월이 다되도록 의사자 지정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양 사무장님 장례를 치른 뒤 곧바로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할 소식이 없다”면서도 “위낙 사고 당시 그 행동을 두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던 분이기에 의사자 지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상 약자를 먼저 돌보았던 고 양 사무장에게는 팔손이 넘는 어머니와 부인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아있다.

고 사무장의 가족들은 세월호 침몰 직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실수로 양 사무장 등 ‘실종된 승무원 등 실종된 선사 직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사실에 대해서도 “당연히 출국 금지해야죠, 그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죽었는데...”라며 답답히 받아들이는 등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마저도 깊은 감동을 전했다.

양 사무장의 형 석환(49)씨는 “아직 실종자 10명의 시신을 못찾아 가족들이 애 태우고 있는 상황에서 침몰 당시 동생이 죽음을 각오하고 아이들 몇몇을 구했다고 해서 ‘의사자 지정을 서둘러달라’고 요구할 입장은 아니다”며 “하지만 남겨진 조카들과 제수씨의 고단한 삶을 지켜보면 하루라도 빨리 의사자로 지정돼 명예도 회복하고 조카들의 삶이 좀더 안정되기를 바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된 고인의 유족에 대해서는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다.

/진도=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4 달출몰 02:25
해질름 19:43 달지름 16:43

무더위 계속

맑은 가운데 폭염 이어지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23/33	보성	맑음	22/30
목포	맑음	23/29	순천	맑음	23/32
여수	맑음	24/29	영광	맑음	23/31
나주	맑음	22/31	진도	맑음	23/30
완도	맑음	23/31	진주	구름많음	24/30
구례	맑음	22/33	군산	구름많음	23/28
강진	맑음	23/31	남원	구름많음	23/31
해남	맑음	23/31	흑산도	맑음	22/28
장성	맑음	22/30			



◇바다 날씨

시해	방향	오전		오후	
		파고(m)	풍향	파고(m)	풍향
남해	남~남서	0.5	남동~남	0.5	
남부	남~남서	0.5~1.5	남동~남	0.5~1.5	
남해	동~남동	0.5	동~남동	0.5~1.0	
서부	동~남동	1.0~2.5	동~남동	1.5~3.0	

◇생활지수

식중독	80
운동	40
빨래	7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시각	수위	시각	수위
여수	11:22	05:00	00:00	17:01
	06:41	00:49	06:41	00:49
	19:25	12:41		

◇주간 날씨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	☁	☁	☁	☁	☁	☁
24/32	23/28	23/28	24/30	25/32	25/32	25/32



‘100일간의 기다림’

22일 오후 찾은 진도 팽목항은 사고 초기의 북적이던 모습과는 달리 차분한 모습이다. 등대 주변 난간에 걸려있는 노란 리본만이 먼저 떠난 이들을 추모하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실종자를 기다리고 있다.

/진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내일 팽목항서 희생자 추모·실종자 복귀 염원 행사 ‘실종자 100일의 기다림’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진도군 팽목항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 복귀를 염원하는 행사가 개최된다.

22일 진도군 범군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추모행사인 ‘실종자 100일의 기다림’이 열린다.

실종자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행사는 희생자 추모 묵념과 국민의례, 참석자 전원이 참석하는 노랑풍선 100개 띄우기 등이 진행된다.

또 진도지역 교사와 학생, 주민 등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편지 읽기, 호소문 낭독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끝으로 실종자들의 조속한 생사확인을 위해 팽목항

등대에 실종자의 이름표를 붙이고 이름을 3번씩 부를 예정이다.

진도 지역 58개 단체로 구성된 진도군 범군민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실종자 가족과 진도군 관계자, 지역 학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도 24일 저녁 7시30분 목포 연동성당에서 광

주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의 주례로 세월호 사고 100일 참회와 새로움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기로 했다. 미사에는 광주대교구 사제와 수도자, 신자들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또 실종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염원하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팽목항 미사’가 오는 27일 오후 4시 진도 팽목항에서 김희중 대주교의 주례로 열릴 예정이다.

/진도=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세월호 참사 벌써 잊었나”

자원봉사·구호물품 급격 줄어 우려 목소리

“침몰 참사 초기만 해도 전국에서 물려든 구호물품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요즘은 하루 3~4건 밖에 안돼요”

진도우체국은 세월호 사고 직후 전국 각지에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보내오는 구호물품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우체국 안은 구호물품으로 가득차고 한 때 8t 트럭에 가득 실려오는 물품들을 정리하지 못해 진도 실내체육관으로 옮겨 보관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100일을 지나면서 진도 우체국은 예전의 한산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하루 평균 4개의 구호물품만 접수되고 있다는 게 우체국측 설명이다.

우체국 뿐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로 전해지는 구호물품의 경우 지난 4월 18일부터 쌀과 부식, 생수, 의약품 등 총 77만4059개에 달했다. 4월부터 하루 평균 5000개 이상의 구호물품이 들어왔지만 7월 이후 급격히 줄었고 지난 20일과 21일 들어온 구호물품은 생수와 의류, 간식 등으로 각각 104개, 302개가 접수되는 데 그쳤다.

진도 실내체육관도 썰렁함이 느껴졌다.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렀던 체육관 내부에는 주인을 잃은 매트와 이불들이 그대로 펼쳐져 있다.

가족들에게 제공했던 밥차 등 무료급식 지원차량도 한 때 11대에 이르렀지만 5월에는 6대로 줄었고 체육관에 1대만 남아있었다.

세탁차량도 많을 때 체육관 2대, 팽목항에 4대까지 운영됐지만 점점 줄어 각각 1대씩만 남아 있다.

특히 팽목항의 경우 세탁차량이 4대에서 1대로 줄어들면서 빨래량을 소화하지 못해 체육관까지 원정 빨래를 하기 위해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어 자칫 고장이라도 발생할까 염려스러운 정도다.

여전히 가족을 찾지 못한 이들이 남아 있는 만큼 “잊혀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두려움도 감지된다.

자원봉사자 수도 크게 감소했다. 4월 20일 2350명의 자원봉사자가 몰렸지만 이제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을 지키는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60여명 수준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하루 자원봉사자는 ▲5월10일(615명)▲5월20일(316명)▲5월30일(287명)▲6월10일(228명)▲6월20일(162명)▲6월30일(163명)▲7월10일(112명)▲7월20일(93명) 등으로 나타났다.

/진도=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진도=박기승 수습기자 pboxer@

Advanced Partner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미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